

방기인(放送技術人)의 제주탐방 - 17 올레탐방 서귀포편

글. 박지형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영어FM방송국

방기인의 제주탐방은 올레길 산책으로 이어진다. 제주올레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는 것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다. 제주도 하면 한라산과 올레가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올레코스 700여km를 극기훈련하시는 분이나, 올레 스탬프를 쫓아다니시는 분이나, 올레 맛만 보시는 분이나 모두 제주올레에 관한 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에 몇 자 덧붙여봐야 군더더기만 될 뿐이다. 동쪽 성산 시흥마을로 발길을 옮긴다.

올레 1길

제주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 당연히 올레1코스.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닷올레다. 아담한 시흥초등학교 남쪽 출발점에서 노인회장을 만났다. 서귀포에서는 제일 처음 생긴 마을이라면서 시작할 시始 일어날 흥興이라고 마을을 소개해 주시며, 올레길에 대한 구수한 설명과 함께 점심 식사는 길 건너 바닷가 쪽에 있는 해녀의 집에서 드셔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신다. 초입부터 동남사면에 절벽을 두른 두산봉(斗山峰말미오름, 표고 126.5m, 알오름·복합화산체)이 몸단장한 탐방객을 위해 목재계단 양 옆으로 해송들을 도열시켜 탐방객을 맞이한다. 정상에서는 대·소왕산, 지미봉, 우도, 일출봉이 전경으로 맞아준다. 한반도 모양의 발과 알오름의 동강난 비석을 확인하고 종달해안에서 꼬들꼬들해가는 한치로 코와 입을 즐겁게 하고 롤루랄라 성산 일출봉으로 간다. 성산항의 흥물 방송철탑



두산봉과 한반도 모양의 발

을 제외하고는 일출봉을 내내 눈에 새기고 파도가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보였다 잠겼다 하는 빌레·너럭바위가 일품인 광치기해변 즐기기에 더해 일출 배경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작가가 되어본다.



뚜벅이 시흥상동로 시흥리(201번) → 스탬프장 70m

올레 1-1길

좋은 날 화창한 봄날 삼월을 보내고 사월과 함께 우도로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버스는 유커遊客들의 자리 차지에 제주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롯이 성산항까지 서서 가야 했다. 비행기나 차로는 갈 수 없다. 오로지 배로만 우



쇠머리오름 산등성과 비양도

도에 안길 수 있다. 올레길이 우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올레꾼의 시간은 바쁘기만 하다. 검멀레 해안도 섬 속의 섬 비양도도 답다니탐망대 답사도 땅콩아이스크림 맛보는 것도 관광객의 몫으로 돌려야 했다. 바다 절경을 담고 싶으면 쇠머리오름(牛島峰, 표고 132.5m, 원뿔형)쪽으로, 섬사람들의 삶을 담고 싶으면 하우목동항 쪽으로 가면 된다. 섬을 따라 난 길은 젊음의 길이요, 청춘의 길이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길이다. 과히 전기차와 스쿠터 천국이다. 그러나 한눈팔지 말아야 한다. 사랑에 취한 전기차와 스쿠터가 언제 당신의 육신을 뺏어갈지 모른다. 두서너 대는 이미 밭 언덕에 머리 박고 쉬고 있다. 섬 속의 섬 탐방 기억을 더듬어보자.

 **뚜벅이**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111, 211, 212, 295번)
→ 우도 천진항/하우목동항

올레 2길

오조포구 내수면독방길을 따라가면 울창한 숲으로 봉긋하게 수면에 떠서 양증맞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식산봉(食山 峰바오름, 표고 60.2m, 원뿔형)은 공원 산책길로 성산 오조 지질트레일로 탐방객들을 불러들여 해무 타고 바다 위를 걷는 듯, 병디, 꽃자왈, 도원桃園숲길을 걷는 듯, 목책길을 따라 하늘로 가는 듯, 식산봉에서 몽롱한 세월을 헤아리듯 한 갑이 지나간 줄도 모르게 한다. 제주의 무릉도원이다. 중간스탑프 홍마트에서 모슬포 중점 홍마트를 잠깐 떠올리고 감굴 무인판매대를 지나 큰물피(대수산봉, 표고 127.3m, 원형분화구)에 올라 성산 아주머니와 함께 장의자에 앉아 성산과 성산사람에 대해 귀담아들었다. 하얗게 더 넓게 펼쳐진 메밀밭에 발길은 멈췄다. 메밀꽃 향기에 취해



오조포구와 식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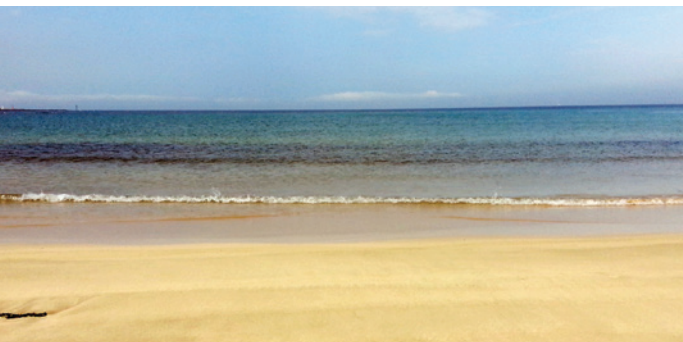
건다가 혼인지의 수국향에 흠뻑 취해 옷번지현생원잔칫날에 무례는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온평포구의 환해장성에 걸터앉아 뜻을 새기는 것을 보니 제정신으로 온평포구까지 온 모양이다.

 **뚜벅이** 일출로 광치기해변(201, 295, 722번) →
스탑프장 100m

올레 3길

중산간의 고즈넉함과 외로움이 함께하는 A코스와 신산환해장성을 경유하는 B코스를 한참에 탐방하지는 못한다. 너무 먼 길이다. 오늘은 A코스, 내일은 B코스다.

굴과원, 수수밭, 메밀밭이 좁다란 시멘트 농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자연의 멋 부림도 사람의 가꿈도 간세도 없다. 다만 올레 리본만이 말을 건넨다. 힘들죠? 나지막하지만 전망이 탁 트인 통오름과 독자봉이 선문선답하고 있다. 5개의 완만한 봉우리가 통처럼 서향분화구를 감싸 안고 도는 통오름(桶岳, 표고 143.1m, 서향분화구)도 보랏빛 들꽃으로 물들일 때도 있다. 건너편 남쪽에 혼자 같잖은 독자봉(獨子峰, 표고 159m, 남동향 말굽형 분화구)이 나 홀로 있다는 건지 마을에 독자가 많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표정이다. 중간스탑프 김영갑 갤러리 님의 가꿈과 꾸밈 노력



표선해수욕장

에 감사한 마음을 남기고 열린 바다목장길로 들어섰다. 바닷길 A, B코스가 만나 신천목장 초원에서 반눈에도 차지 않는 사진기를 들이대 본다. 얼른 사각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풍경에 빠지면서 눈을 쉬었다. 배고픈 다리에 오니 정말 배도 고프다. 썰물 때라 C형 백사장 화폭에 그리는 표선 해변의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물결무늬를 따라 그곳에 왔다. 해녀상과 12지신 원숭이상 앞에 섰다. 찰칵! 찰칵!

뚜벅이 일주동로 온평초등학교(201, 295, 722번) → 온평포구 스탬프장 860m

올레 4길

절반의 아름다운 해안 올레 표선 바닷가 당케포구를 걷는다. 현무암 빌레와 몽돌들이 펼쳐진 해안 길은 일품이다. 잔뜩 찌푸린 날씨마저 해안 길에는 안성맞춤이며 발의 느낌도 좋고 걸음도 가볍다. 장장 23km의 올레는 토산마을을 형성시킨 씨앗이요 뿌리인 토산봉(龜山峰망오름, 해발 175m, 2개의 말굽형화구)을 위한 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잘 단장한 산책길은 이런 토산봉에 대한 은혜의 표시리라. 운무를 뚫고 은은히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가 어디로 이끈다. 거센새미와 노단새미다. 태신해안로, 남태해안로를 따라 포구와 포구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해안가장자리를 거닐면 현무암 빌레와 몽돌에 부딪히는 원양파도의 물보라와 꽃자왈, 병디 숲 터널과 숨바꼭질하면서 파도에 들리고 바람에 잡히는 그런 5시간을 바다와 숲과 올레꾼이 숨바꼭질하면서 남원포구에 왔다.

뚜벅이 민속해안로 제주민속촌(121, 221, 222, 731번) → 제주올레 공식안내소 100m

올레 5길

정말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 큰영해안경승지 산책길을 지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최소깍까지 가면서 오감을 활짝 열고 걷는 바닷길과 마을올레다.

용두암과 효돈천의 용연자료를 빠르게 대비시키면서 효돈천을 끼고 있는 예촌망을 찾아 나섰는데 간세는 말하고 있다. 예촌망(해발 76m, 원뿔형)-망오름은 지형이 마치 여우와 닮았다고 해서 호촌봉수라고도 부른다. 이 봉수터는 60년대 이후에 감귤원이 조성되면서 사라졌으며, 궁핍했던 당시 제주의 삶을 망오름은 현실로 말해준다. 방풍림 삼나무에 울화를 터트리며 투덜투덜 해안 빌레를 간다. 위미의 꼭두들과 참여와 만남으로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내일학생 마음빛그리미를 통해 위로를 받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은 큰영으로 옮겨졌다. 큰영! 해안 절경이 빚어낸 작품들을 감상하는 동안 또 다른 시 낭독의 시간으로 왔다. 남원문화의 거리는 생활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서귀포 동남해안가를 걸었다. 파도가 만들어 내는 형상과 소리는 새로움과 신비로움이다. 조용한 해안가 숲속을 바다빌레에 부딪히는 파도를 발밑에 구르는 맑고 맑은 자갈들의 아우성을 아우르면서 그곳까지 갔다. 비록 즐기 위한 손길도 있었지만, 그것이 더 멋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뚜벅이 태위로 남원포구입구(201, 231/2, 510, 741번) → 남원비안포구 제주올레 안내소 200m



세화포구



조배머들코지

올레 6길

서귀포시와 가까워지면서 올레는 해안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면서 교통도 수월해졌다. 교통 닿는 대로 간다. 어제의 폭우로 쇠소깍의 목책전망대 일부는 폐쇄되었다. 여름 장마철엔 설문대할망 눈물과 햇볕에 대비해야 한다. 해송과 용암과 빨간등대와 포구가 어우러진 사진 같은 하효항에서부터 이어지는 생이들해안 그리고 가장자리에 도열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보를 주는 표지석과 안내판은 멋진 올레를 만들어준다. 자리돔의 본 포구 보목항과 섯섬을 살짝 품은 봉긋한 제지기오름(절오름, 해발 94.8m, 원뿔형)이 바짝 붙어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된 2개의 산책코스(650m, 1115개 나무계단)를 오르면 운동시설, 쉼터, 전망대가 마무리해준다. 해안과 도심 올레로 들어가기 전에 올레6코스의 진수 소천지와 소정방폭포가 관광을 시켜주고 칠십 리로·작가의 산책길을 따라 걸으면서 삶과 문학의 정취를 듬뿍 안고서 올레를 마무리



보목동 소천지

하고자 하는데 삼매봉이 눈엣가시다. 이제 방송중계소 역할도 그만해야 하는데... 대양으로부터의 거침없는 쉼 소리를 그대로 받아 주는 쇠소깍과 아기자기한 포구들. 해안 길을 잡아주는 지귀도, 섯섬, 문섬과 천지, 정방폭포를 무색케 하는 소천지와 소정방폭포를 이어가는 해안 올레(B구간 13.5km)와 시장 올레(A구간 13.7km) 소암로, 작가의 산책길과 이중섭거리, 칠십리시공원은 필부를 작가로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다시 필부로 되돌려 놓으면서 외돌개 솔빛바다 입구에 왔다. 지금은 충청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가 역할을 이어받았다.

 **뚜벅이** 일주도로 하례1리입구(201, 231/2, 295번)
→ 쇠소깍다리 스탬프장 780m

올레 7길

외돌개 솔빛바다 나무계단을 내려 황우지해변과 선남선녀탕, 신선바위에서 한껏 마음을 부풀려 송림욕을 하면서 왁자지껄 외돌개, 폭풍의 언덕까지는 관광객이었고 범섬과 서귀포항을 바라보며 목책길을 따라 혼자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다시 외로운 올레꾼이 되었다. 돛배낭길에서 해안 길은 막혔고 지척의 속골은 ㄱ형길이라 속상하다. 휴양시설 때문이다. 몽돌길, 수봉길, 해녀마을 법환포구, 일강정바당 올레를 걸으며 도란도란 삶을 얘기하며 번뇌도 씻었다. 서

외돌개, 범섬, 대장금 촬영지



건도도 바닷길을 열어주었고, 바닷가우체국에서 올레꾼들도 마음이 열렸다. 빌레를 잔잔히 넘나드는 강정유원지를 따라 감돌던 올레 평온은 강정교를 지나면서 깨졌다. 해군 군사기지에 대한 의견충돌의 현장이다. 어수선하고 썰렁함을 지나 유명마을에 서 있다.

최고의 올레7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나 외로운 외돌개, 갈 수 없는 황우지해변, 몸 담글 수 없는 선녀탕, 영원한 대장금과 폭풍의 언덕, 그 의미 있는 아름다운 절경에 잘 조성된 목책산책로는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한다. 아름답디 소나무와 깎아지른 해안 절경은 아찔함으로 시원함을 강제하고, 법환포구, 강정포구, 월평포구로 이어지는 해안 올레길은 범섬의 맨 얼굴을 보여주고, 해안가 현무암이 만들어 내는 군상들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숙제만 늘어나고 단함이 더해지기 전에 놀멍쉬멍해야 한다.

 **뚜벅이** 서문로 평생학습관(201, 202, 281, 282번) →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380m

올레 7-1길

비 오는 날 또는 폭우 후 갈만한 제주여행지는 단연 영포폭포다. 잘 구획된 도심(강정택지개발지구와 서귀포시청제2청사의 계획지구)을 지나 고근산 밑줄기 종바기왓[밭]길을 감아 돌아 감굴원과 방풍림 숲길을 지나 월산동에서부터 기대찬 영포폭포翁渡瀑布로 갔다. 목책길을 따라 영포폭포 1, 2, 3단 전망대에 올랐다. 정말 웅장한 폭포는 그 이름에 걸맞게(세계 4대 폭포) 폭포수는 어제로 끝났다. 한발 늦었다. 대신 고근산 간세를 따라 경계담과 임도를 가로지르고 계단을 올라 고근산(孤根山, 높이 396m, 원형분화구)에 올랐다. 정상 전망대에서 대륜명소 12곳은 머릿속에서 정리해 마음속으로 담아가기로 하고 한라산과 하늘선을 잊



하논분화구

는 서귀포 전경을 온전히 담아본다. 오늘은 서귀포 전경으로 만족해야 했다. 시민의 건강증진길 보름모루길을 따라 발길은 하논분화구로 이어졌다. 늦모내기하는 부부 농부의 한가함과 이앙기 소리만 덜덜거리며 하논분화구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다. 복원은 쉽지 않겠지만 손길을 뚫으면 자연의 타임캡슐은 이어지리라. 보로미오름(표고 85.4m, 원뿔형)도 삼매봉(三梅峰, 표고 153.6m, 복합형)도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뚜벅이** 일주동로 제주월드컵경기장(182, 202, 282, 600번) → 종점 스탬프장 120m

올레 8길

약천사라는 엄청나게 큰 절이 보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하고 대포포구로 향한다. 울창한 소철나무 가로수가 좌우에서 그 큰 키를 뽐내며 언제나 갈려나 내려다보고 있다. 그렇지요. 부지런히 가다 보면 중문관광단지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한가한 인적이란 없는 여름의 대포포구를 지나 대포주상절리가는 공원 산책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바닷가는 목책으로 차단되었다. 개발 예정지라는 표지판은 치워버리고 싶다. 이곳이 또 시멘트 장벽이 세워진단 말인가? 주상절리도 한탄하고 파도도 녀을 잃고 말 것이다. 날짜를 바꿔 끝없이 보이는 목책계단을 올라 베릿네오름(星川峰, 표고 101.2m, 동향 말굽형 화구)에 왔다. 봄철이면 올레 관광오신 아주머니들이 사라지는 곳이기도 하다. 고사리 때문에. 아침먹이 사냥에 나선 새들도 이른 올레꾼의 방문을 싫어한다. 미안하다. 중문관광단지를 훑히 내다보면서 앞 건물들을 눈 아래로 깔면 정말 아름답다. 한 바퀴 돌아 나오면 베릿내공원이다. 고운 색달해변 모래



대포동 주상절리대

한번 만져보고 해안을 이어가고자 하나 해변대 길은 갈 수 없다. 여기서 ㄱ형길로 대왕수천예래생태공원 나는 누구 일까요를 맞춰가며 논짓물까지 가야 한다. 예래 해안도로 (열리 해안도로)는 아담한 하예포구를 이어가며 군산이 품은 난드르 마을, 자연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작은마을 대평포구에서 올레를 마친다.

 **뚜벅이** 일주서로 하원동(202, 282번) → 아왜낭목 스탬프장 1.6km

올레 9길

오길이다. 해안부터 시작해 흙 한 줍, 풀 한 포기 없는 말이 다녔다는 물길, 끝없이 펼쳐진 콩밭과 소철나무재배지 한 밭소낭길을 둘러 나오면 절벽 위의 드넓은 초원 박수기정이다. 해안절벽, 숲길에서 대평포구, 형제섬, 마라도를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가는 올레다.

보리수나무 우거진 불레낭길은 힘들지만 산방산과 화순항을 보여주며 힘을 실어준다. 월라봉서능선을 따라 돌며 약탕기보에서 탕약을 짜내듯 온몸을 적시며 일제 동굴 진지를 탐사하고 정상에 올라 산방산을 본다. 올레와 오름 탐방의 당위성과 보람이 함께 교차한다.

월라봉(月羅峰다래오름, 높이 200.7m, 복합화산체)을 빠져나와 안골에서부터 창고천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 나오는 안덕계곡은 그 멋을 알 수가 없다. 계곡과 수목과 산세



대평포구와 박수기정

가 잘 어울리는 것 같으나 오늘의 끈은 알 수가 없다.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며 숲길을 걸어갈 뿐이다. 간혹 들리는 계곡 물소리를 귓전에 남기면서 무념으로 창고천을 따라가다 간 세머리를 확인하지 않아 지질트레일길과 시름하였고, 또한 한 번 넓디넓은 화순항에서 맥이 풀렸고 설상가상으로 올레 지기의 도움도 엉망이 되었다.

 **뚜벅이** 일주서로 안덕계곡(202번▷대평리 531, 751번) → 대평포구 스탬프장 650m

올레 10길

화순금묘래해변에서 두어 알갱이 황금을 캐서 눈누난나 올레를 시작했다. 황우치해변을 따라가면서 산방산에 억눌린 가슴은 형제섬과 눈 맞추며 가슴을 열고 산방연대에 올라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원함과 통쾌함은 이제 산방산 북쪽 자락을 돌아오는 길로 바뀌었고 송악산 분화구 탐방도 대

사계 해안



신에 잘 단장된 목책계단 둘레길(최남단해안로)을 돌아야 한다. 운진항도 신항으로 발돋움하면서 모슬포항의 모자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안식년이지만 멀쩡한 썩은 다리를 건너 형제 해안도로를 가는 두 올레꾼은 목적이 서로 달랐기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결국 송악산(松岳, 표고 104m, 복합형)에서 헤어졌다. 태평양전쟁을 제주에서 결사 항쟁으로 끝장 보려고 한 일제의 만행은 영원히 잊지 말라고 발걸음도 무겁다. 알뜨르비행장과 첫알·동알오름(송악산의 동/첫알오름, 표고 45/40.7m, 말굽형 분화구)의 고사포진지, 안덕, 대정 일대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구축된 동굴 진지는 당시 제주민들의 고난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 치미는 울분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가락 가늠자로 일장기단 아군기를 격추시키다 보니 발길은 천주교 순례길과 헛갈렸지만 마음은 한결같았다. 문드리곶남제주 격납고를 헤매면서 모슬봉을 기준 삼아 모슬포항으로 가는 힘든 올레가 되었지만 다시 생각하는 올레10길이다.

 **뚜벅이 화순로 안덕농협(102, 151, 202, 251번) →**
제주올레 안내소 840m

올레 10-1길

높이 1,950m 한라산 대비 20m의 가장 키 작은 섬 가파도는 해안선 4km 중 남북해안 1km를 제외하고는 해안 올레다. 4.3km 올레길을 따라 놀며 쉬면서 가파도 짜장면도 한 그릇 시켜 먹고도 배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산책과 휴식의 섬이다. 설렘으로 가파도를 찾은 때는 청보리가 누런 옷으로 갈아입을 때였다. 섬 속의 섬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살아



모슬봉

가는 곳 가파도다. 할망당, 주충낭여, 팽풍덕, 고냉이돌, 블락코지 등 억센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올레다.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너의 맛이 좋구나.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황금 보리밭, 더 품고 싶은 바다내음, 잠시라도 더 눈을 머물고 싶은 파노라마 풍경들, 바다에 있다는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 가파도와 모슬포는 내 앞에 나타났다. 반나절의 추억이지만 가파도는 온전한 한나절로 기억될 것이다.

 **뚜벅이 최남단해안로 모슬포남향 여객터미널**
(151/2.251/2/3/4/4번) → 가파도 상동포구

올레 11길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에서 시작하는 11코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 근대사와 현대사가 녹아있는 올레다. 대정들에 우뚝 솟은 모슬봉에서는 흔들리는 역새 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제주 남서부 일대의 오름과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제주 1년 살기로 와서 17코스에 이어 두 번째 나선 올레다. 하모제주 올레 안내소에서 무릉생태학교(현재는 무릉외갓집)까지 이런저런 곳을 찾아가면서 가는 헛갈리는 올레다. 한겨울 별판을 훑고 지나가는 모진 겨울바람을 맞으며 모슬포항을 들어섰다. 동일리(새개)포구, 동쪽 일출봉에 대해서쪽 대정들에 우뚝 솟아 길잡이 역할을 하는 모슬봉(모슬개오름, 표고 180.5m, 원뿔형 기생화산), 추사(秋史 金正



가파도 보리밭



喜, 1786~1856)와 정난주(丁命連, 1773~1838)를 만나는
 유배길과 순례길, 비밀의 숲·아름다운 숲길의 신평무릉 곳
 자왈,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 무릉생태학교까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올레다. 기원전
 탐라 형성기의 원시움집에서라도 묵으면서 올레를 마무리
 한다면 진정한 올레꾼인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아
 쉬움이 스친다. 집으로 제주시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서글픈
 줄도 몰랐다. 몇 번을 갈아타고 가야 할 버스는 기다려도
 기이더라도 오지 않는다. 아! 울고 싶어라. 무릉생태학교武陵生態學校여.

㉠ **뚜벅이** 최남단해안로 하모체육공원(151, 152,
 251/2/3/4/5번) → 제주올레 안내소 80m



제주도 동쪽 시흥(올레1코스)에서 서쪽 끝 모슬포(올레11코스)
 까지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제주 곳자왈과 오름에서 생태·탐
 방길에서 원시 자연생태를 보여주는 가수기목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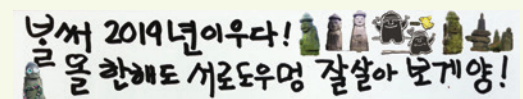


제주 문화

제주토속음식[갈치구이·조림] : 옥황상제가 용왕에게 진사하는 여의주
 를 훔쳤다가 용왕에 의해 갈치로 화한 용맹하고 포악한 셋째아들의 혼이
 깃든 생선. 갈갈이 생겼다는 생선. 오메가 성분이 풍부한 단맛 나는 갈치!
 푸짐한 기본찬과 함께 한 상 차려내는 제주 갈치요리를 소개한다. 1m가
 넘고 4자가 넘는 은빛 갈치를 길이대로 구워내는 갈치구이, 전복·낙지와
 함께하는 갈치조림과 찌개, 선상에서 갈치회까지 맛 본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제주의 맛이다.



제주말 익히기 : 벌써 2019년이네요! 서로 도우며 잘살아 봅시다!



㉠ [] 제주방언, () 보충설명

㉡ 정보검색 : 올레정보 www.jejuolle.org

한라산국립공원 : www.hallasan.go.kr

제주 북부 해안과 중산간을 따라가면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체취가 묻어있는 올레길을 따라가면서 쉼길, 4·3길, 유배의
 길, 성지순례길, 절로 가는 길과도 만나면서 제주 삶에 한층 가
 까워진다.